

# 미술협회 포천시부 양주승 부지부장 공로상 수상

## ‘제16회 경기예술대상 및 공로상 시상식’



미술협회 포천시부 양주승 부지부장은 지난 10일 수원 나프리카호텔에서 경기예술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나프리카호텔에서 열린 ‘제16회 경기예술대상 및 공로상 시상식’에서 미술협회 포천시부 양주승(57.사진) 부지부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양주승 부지부장은 포천시 참수면에서 출생하여 1990년대 초반 서예에 입문, 1997년 한국미술협회 포천시부 창립을 이끌었으며 현재

포천신문 지문위원장, 포천미술협회 부지부장 및 포천예총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7회의 포천미술 정기회원전과 경기북부 지역작가초대전 및 경기미술회원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체육부장관상, 법무부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서예문인회 대전 입선, 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입선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회장 정규호)가 주최하여 각부문별 대상 9명과 공로상 10명을 각각 시상했다.

한편, 정규호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예총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더욱더 예술활동에 전념해주길 당부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예술대상 대상 ▶사진부문 김영길 ▶국악부문 임용수 ▶음악부문 주익수 ▶문학부문 원용문 ▶미술부문 이선열 ▶연예부문 정해철 ▶연극부문 유경석 ▶무용부문 안춘자 ▶건축부문 황정복 ▶경기예총대상 공로상 ▶국악부문 최근순 ▶음악부문 조영숙 ▶문학부문 조남숙, 윤갑수 ▶미술부문 양주승 ▶연예부문 안금옥, 유양수 ▶연극부문 박종찬, 최병화 ▶무용부문 이선아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불신의 벽 허물어요”

## 탈북동포돕기 물품전달식

지난 14일 오후 2시 포천시 소흘읍 소재 원일아파트 주차장에서는 탈북동포돕기 물품전달식이 개최됐다.

원일산호1차아파트 주민자치회(회장 김종현)는 아파트 주민들이 성의껏 모은 이불, 옷가지, 생필품 등을 탈북동포들을 위해 ‘산돌교회’의 김현동 목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산돌교회’는 지금까지 탈북동포에게 취업상담과 더불어 여러곳에서 보내온 물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탈북동포 사랑을 직접 실천해

왔다.

탈북동포 정모씨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막막했는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환한 표정으로 답례했지만 “복에 두고온 가족이 열려된다”며 이내 그늘이 드리워졌다.

한편, 김종현 원일산호1차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은 “불신을 씻어내고 서로 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원일산호1차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동아파트 주차장에서 탈북동포돕기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정기총회

## 22일 오후5시 포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개최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한철)가 오는 22일 오후5시 포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김영목 포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행정발

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회의내용은 임원단 선출과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회비 징수방법 논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목기자 best114@paran.com

# “사랑의 메주 판매합니다”

## 신북면 새마을, 메주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실천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신북면 부녀회(회장 왕성호)가 정성껏 빚은 메주가 주인을 기다린다.

신북면부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북면 왕성호 부녀회장 자택에서 새마을지도자 10명과 부녀회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메주’를 만들었다.

이 메주는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불우이웃에게 쌀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북면 새마을지도자 박성환 협

의회장은 “이번 메주를 만들기 위해 콩 구입에 600만원, 기름 구입비 150만원 등 8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메주 만들기는 신북면 부녀회를 주축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왕성호 신북면부녀회장은 “만든 메주는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량이라도 직접 소비자에게



새마을운동 신북면 부녀회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메주를 만들고 있다.

배달한다”고 덧붙였다.

신북면 부녀회에서 만든 메주는 다음달 20일 이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1말(사당어리)에 6만원씩 판매된다.

예약 및 구입문의 : 011-770-3841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식물기르기

신이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식물과 꽃으로 집안을 꾸며보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꽃과 식물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꽃과 식물을 사용하여 이제는 많은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고 육체적 정신적 육구 및 우리들의 건강관리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얼마전 보도된 산세베리아는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밤에도 산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음이온이 다른 식물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방출해 음이온 식물로도 불린다. 복사차처럼 생명력이 강해 건조한 겨울 거실이나 아이들 방에 하나쯤 놓아두면 좋다.

식물도 정성을 들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온다. 식당이나 마용실 등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스킨다비스는 좋은 식물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두면 냄새 제거를 빠르게 해주고 녹색의 안락함은 신경을 안정시켜 과식을 억제해 준다. 기르기도 산세베리아처럼 까다롭지 않다. 스킨다비스 물주는 일 주일에 두 번 정도면 된다.

올 겨울 신이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식물과 꽃으로 집안을 꾸며 가족의 건강 지킴이 되어 보자. 특히 불면증에는 주위 환경을 음의 상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안개꽃이 대표적인 음의 꽃이다. 집안 분위기를 한층쯤 바꾸어 남은 한해 가족과 함께 마무리 한도 좋을 듯 하다.



정선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정신부장,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리워터디안 최고지도자과정 원일강사

# 인터뷰 서울대수시합격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에서 서울대 수시모집에 2명의 학생이 나란히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남고등학교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심화반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두 학생을 만나 그동안 입시공부와 소감을 들어 본다.

## “1년에 50권 책 읽기가 좋은 결과 가져 온 것”



정 의 식 (동남고 3년)

“장래희망은 CEO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정 의 식(18.사진) 군을 동남고등학교 휴게실에서 만났다.

대학졸업 후 최고경영자과정을 밟고 싶고, 회사에 들어가서 현장감각을 키우는 등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정 의 식 군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한다. 반면 책을

많이 읽었는데 1년에 50권 정도 책을 읽었으며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고 한다.

학교성적관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수업시간에 잘 들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수업시간 50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쉬는 시간 10분을 통해 그 수업내용을 복습하면서 평소 내신성적 준비를 했다고 한다.

정 의 식 군은 그동안 지도해주신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구술고사대비를 도와주시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오셔서 보충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한다. 특히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9)

## 청성산 해맞이

매년 정월 초하루 날이면 내 고향 포천에서는 청성산 해맞이를 한다.

옛날 양사언 선생은 육구술을 실은 마차가 누운 듯 하고 삼대 정승이 탄생할 명산이라고 하였으며 아들 양만고도 청성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있어 유명하며 아침저녁의 청성산성 모습 이 문을 여닫을 때 부는 피리소리라 함께 아름답다고 하였다.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녘 달이 길어 정화수(精華水)를 삼아야 하는데 이를 「용의 알을 길러 동녘 담 아래 차려놓고 만동 트기 기다렸다」다 손을 비비고 큰절을 하며 해맞이를 했다.

이렇게 달과 해의 정기를 담은 신기(神奇)를 부여 신단인 조왕단에 모셔놓고 일과를 시작했다. 「조왕」은 하늘을 오가는 육황

상제의 사자다.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이름에 「아침(朝)」이 들어있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아침은 10시다. 스페인은 12시나 되어야 시작이다. 독일이나 영어에 아침 인사가 들어가지만 한국만큼 애용되지는 않는다.

최치원 선생이 요즈음 중국에서 각광을 받으시는데 남의 비문인 「서신비문(西山碑文)」해돋이 찬양의 글이 있는걸 보아도 남의 한국인 정신을 알만하다.

스콧랜드는 아예 정초가 공휴일이 아닌 일본이 아침해를 자랑하지만 「일본(日本)」의 근본 뜻은 「해돋이 땅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농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 풀질 한지개 새벽 이슬 헤치고 배아다 놓고서야 아침을 먹

었다. 사랑방 남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수도 서울의 아침 청소 미화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떨어진 동전을 아침 청소 하다가 쓸어모아 이웃들을 하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아침 조기(早起) 습관은 해외에도 전하여져서 미국의 아침 신선도를 자랑하는 체스상점이나 생선가게는 유대인에게나 한국인에게로 불러 받은지 오래이며 새벽 문 열고 반듯게 문닫는 「아침형 인간」은 바로 한국인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아침나라」이다. 내 고향 포천도 「새해 아침 해맞이」행사를 매년 이어 오는 것은 부지런한 포천인 정신의 계승일 것이다.

필자인력자 02-932-2434

#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 합격하길 바래요”



박 노 민 (동남고 3년)

“좋아하는 음악을 못해서 한이 맺혔어요. 대학에서는 하고 싶었던 음악 맘껏 할래요”

중학교 2,3학년때 학교친구들과 음악밴드 활동을 했다는 박 노 민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니 충분히 보상 받은 거 아닌가요?”

평소 수업시간을 최대한 성실하게 활용하고 노트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험기간에는 버락치

기 밥 공부한 것이 내신성적 관리의 비결이라 말하는 박노민 양.

수시모집 합격 후 현재 영어, 한문, 일본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있으며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 면허증에 도전중이다.

쉬든 입시가 끝났으니 조금이라도 외지 여행을 다녀면서 한 가지에만 특화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기 보단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길 원한다고 말한다.

대학에 진학 후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면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인다.

박노민 양은 올해 포천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수학부문에서 1등, 외국어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등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freechal.com

# 동 정

**‘포천학교체육협의회 체육교사연수’**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지난 14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사 및 교감·교감, 체육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학교체육협의회 결성 및 체육교사연수’를 가졌다.

**연말특별방범활동 강화 확대회의**

김영목 포천경찰서장은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각과·계장을 비롯하여 지구대장, 파출소장,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특별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확대간담회의를 개최했다.

**소방용수시설 정비 철저 지시**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화재발생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예방 활동 및 유사시 초동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04 활동평가보고회 및 오찬 간담회**

윤장일 민주평등지민회의포천시협의회장은 지난 16일 포천소재 햇살기든에서 열린 ‘04활동평가보고회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CEO초청 경제포럼에서 관계자 격려**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열린 ‘CEO초청 경제포럼’에서 1부 강연회에 이어, 2부 송년회 및 만찬을 열어 참석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포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특강**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지난 17일 산정호수캠핑장에서 개최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연수’에 강사로 참석하여 포천의 역사와 문화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예술활동의 공적 ‘예술대상’ 수상**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예총이 개최한 ‘제18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그간의 예술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예술대상’을 수상했다.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열려**

이동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지난 16일 포천소재 금강한의원 2층 카페 ‘topic’에서 한마음지원봉사회 후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을 열어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해뜨는 집’에서 노력봉사 활동**

이병업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지난 15일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소재 불우시설인 ‘해뜨는 집’에서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 회원 15명과 노력봉사 활동을 펼쳤다.

**잠실 향군회관 향군강좌에 참석**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지난 10일 강사 이동호의 ‘386주사의 문제점’, 강사 남주홍의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향군회관 2층에서 열린 향군강좌에 참석했다.

**창립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윤순옥 포천제21실천협의회장은 지난 16일 포천시 송교동 소재 ‘푸른인덕 연수센터’에서 환경단체 인사 및 시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민간위탁사업 평가회에 참석**

이문환 포천시 가족·성상담센터소장은 지난 16일 10시부터 예정된 시립공소 제2청사 2층 상 황실에서 열린 ‘민간위탁사업 평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현안을 논의했다.

# “내촌 어머니들의 화려한 외출”

신년특집 KBS 가족오락관 녹화

신년 특집으로 방영될 KBS 가족오락관에 내촌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이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녹화현장은 인기 가수 김현정, 코요테, 주얼리의 이지현, 신혜승, 춘자, 이기찬, 이정, 명호가 출연하여 신세대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촌초등학교 어머니회는 여성팀을 응원하는 응원으로 참가했으며 함께 출연한 시흥시 도일초등학교 어머니회는 남성팀을 응원했다.

인기가수도 만나고 쌓인 스트레스 해소하고 노래와 댄스를 선보인 어머니들은 푸짐한 부상으로 받아 실컷나는 하루를 보냈다.

단체 부상으로 받은 김치 명장고는 내촌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으로 있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도 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KBS2 채널에서 오후 6시에 방송될 가족오락관에 출연한 내촌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을 방송에서 만날 수 있도록 포천시 모든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를 기대한다.

최희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내촌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이 KBS가족오락관 녹화현장에서 녹화에 참여하고 있다.